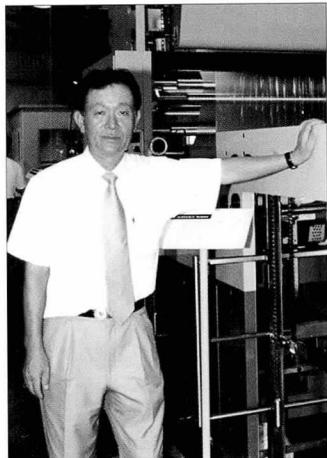


잠깐만 - 전용환 사장

“UV·수성 겸용 코팅기 개발 주력”



“환경까지 생각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용환(52) 주지성기계 대표는 지성이 새롭게 출시한 JS-FLCD-N SERIES에 대해 이렇게 표명했다. 또한 수성과 건식을 이용한 기술 방식 채택에 대해 전 사장은 “세계적인 추세는 실효성에 바탕을 둔 제품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작업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출시된 뒤 제품의 생명력이 어떤 반응을 얻어 가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2년과 제작 기간 1년을 비롯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만큼 확실한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성의 기술력은 태국과 홍콩 등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과 미주 지역에 활발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 전 사장은 현재 고양시 로타리 클럽 부회장 도 역임하고 있다. 향후 지성의 중점적인 사업 육성 계획에 대해 전 사장은 “올 한해를 기점으로 UV·수성 겸용 코팅기 개발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홍일 기자>

친환경

지성기계의 라미네이팅기

JS-FLCD-N SERIES

라미네이팅 기계 제작 전문업체인 (주)지성기계(대표 전용환). 198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성 건식 라미네이팅 기계 제작에 성공한 업체다. 이후에도 기술개발에 사력을 집중해 국내에서 관련 업종 선두업체로 발돋움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명성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라미네이팅기인 JS-FLCD-N SERIES를 출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술의 핵심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습식 방식과 화재의 위험, 환경 오염으로 직결되는 유성 라미네이팅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형으로 제작됐다는 데 있다.

지난 8월20일 자체 시연회를 통해 출시된 JS-FLCD-N SERIES는 타임기어 및 벨트를 부착해 정확한 펀트에 맞는 작업이 이뤄져 작업·수요자의 요구가 동시에 반영된 제품이다. 또한 ▲컴팩트한 스타일 ▲특수 피더판 및 딜리버리판 ▲필름 이송 장치 ▲되감기 모터 등의 전략형 부품이 내재돼 있다.

JS-FLCD-N SERIES에 내재된 부품은 철저한 기능성 제고를 추구했다. 급지부에는 에어 스위치가



장착돼 있으며 메인 작업대에 별도의 보조 작업대가 구비돼 있다. 따라서 논스톱 작업이 가능해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한 열 롤러 나이프 방식을 채택해 파우더를 제거할 수 있어 먼지 발생율을 최소화했다. 제거·정합부는 같이 설계돼 있어 진동과 소음이 줄었다.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라미네이팅부는 더욱 견고한 프레임이 사용됐으며 히팅 롤러는 고급 경질 도금처리 후 경연 연마를 거쳤다.

또한 열 매체 기름을 사용해 열전도율을 높였고 디지털 온도 조절기가 설치됐다. 이로 인해 정확한 온도 감지와 유지가 이뤄진다. 종이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기계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에어 필름 자동컨트롤 장치(E.P.C)로 정교한 필름위치 조정이 가능하다. 로터리 커팅부는 고속 작업이 가능토록 설계됐으며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딜리버리는 정확하고 안전한 종이 추림 방식이 특징이다. 원단은 에어타공 벨트에 의해 운반되며 적재 시 에어공급으로 인한 정확한 원단 추림 및 양면 인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필름 공급부는 폐 필름 절단 장치가 부착돼 있으며 기계 정지 시 필름 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코팅부는 수성 나이프 방식을 택했고 건조실은 보온재 삽입으로

보온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수성 건식 방식을 택해 환경 보전에도 한층 진보된 기술력이 돋보인다. 기존에 사용돼 오던 유성 라미네이팅 방식은 작업 속도는 탁월하지만 용제로 쓰이는 벤젠과 톨루엔으로 인해 수질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작업을 12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용제로 쓰이는 톨루엔이 2드럼이 사용돼 환경 문제로 이어졌다. 이처럼 JS-FLCD-N SERIES는 환경을 생각한 수성 건식 방식을 택해 기존의 유성 용제로 쓰이는 벤젠과 톨루젠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없앴다.

한경수 상무이사는 JS-FLCD-N SERIES에 대해 “기존의 습식이나 유성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제품”으로 환경 보전과 작업 속도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됐다”라며 “2년의 연구 개발 결과는 결국 수요자들이 평가를 내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연회에는 인체에 무해한 수성 용제를 사용해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JS-U-W-C SERIES(UV·수성 겸용코팅기)도 동시에 출시됐다. 이 제품은 TWC 헤드기계가 탑재돼 있어 1차 하도 코팅이 필요가 없이 UV코팅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